누진 자체의 선장을 쥐고 모든 걸 거기다 믿고 말겨라

☞ A26면에서 계속

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틈이 났다 또 벌어졌다 오므라지고 오므라졌다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도 벌어졌다가 한데 붙어지고, 합쳐지고 또 벌어지고 싸우고, 허허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조그만 것만이 아니라 큰 거에서부터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걸로 그렇게 벌어지곤 하죠. 우주의 섭리도 그러하고 은하계의 섭리도 그러하고 모두가, 블랙홀의 섭리가 다 그러한 거니깐요.

그래서 또 한 말을 한번 되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꼭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컴퓨터니 녹음기니 텔레비전이니 또 로케트니 뭐, 그냥 별놈의 게 다 생겼습니다. 허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자동적인 누진이 있느니라, 자동적인. 자동적인 누진. 바로 세세생생을 이어 가는 자동적인 누진. 이거는 인간의 중심, 바로 두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다가 과거를 보려면 꼭 비디오를 되감아서 다시 넣어야 봅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그러나 한생각의 머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거를 다 스크린처럼 돌려도 손색이 없이 다 나옵니다, 과거가. 안 그러십니까? 그, 묘한 법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려면 한번 스크린을 돌려 보세요, 마음의 스크린을. 얼마나 잘 생각나고 얼마나 잘 보이나.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찰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그건 물질과학이지 심성 과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심성 과학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계죠. 광대무변하고 묘한 법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가도 손색이 없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깐요. 댁의 몸으로는 모두 뛸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모두, 이 세상 도량을 한꺼번에 쥐고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도리가, 바로 그 녹음해 둔 이 두뇌에 있단 얘깁니다. 두뇌 아닌 두뇌지, 또 그것도. 이 물질적인 두뇌에 접해서 그냥 응시해서 있을 뿐이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몸체가 다 죽어도. 그러니까 묘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이게 때로는 화면, 또는 말 나오는 거 또는 끄고 켜는 거 또 높이고 줄이는 거, 이거와 텔레비전 전체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조절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 안에 수없이 생명의 그 의식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꽉 찼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꽉 차서 보고 듣고 또는 가고 오고 또 만나고 또는 내가 어디서 오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다섯 가질 종합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뇌에 연결이 되는 게 누진입니다. 그 누진에 녹음이 다 됩니다, 그게. 녹음이 다 되고 입력이 다 돼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인간 몸에 사대로 통신이 돼 가지고 그 사대 안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통신이 되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바깥의 일들이 보고 듣고 들이고 대뇌로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 가지고선 바로 찰나에 이게 바로 되는 일입니다.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고 그러는 까닭에 인간 몸뚱이 하나가 모두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로보트가 컴퓨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듯이 자기가 생각을 내서 하는 게 없어요, 이 몸체 안의 생명들은. 통신이 돼야만 그것이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그 통신이 끊어졌다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들이쉬는데 들이쉴 수가 없고 내쉬는데 내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죽는다 이런 뜻이나 똑같죠. 끊어지니까, 한쪽이 끊어지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전체의 이 모두를 볼 때, 보세요. 보는 거, 이거를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말할 땐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서 이럽니다.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 남의 마음을 아는 것 타심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걸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그냥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보고 돌아가고 걸어오는 것도 발자취를 짊어지지 않고 오고.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도 들을 뿐이지 그냥 돌아가고 있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들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자꾸자꾸 끌어 뭉쳐서 쥐고 놓지를 않고 사는 습관에 의해서 그냥 마음으로 자꾸 오업(五業)을 짓는 거죠. 다섯 가지 업을 짓는 거죠. 그 업 속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종합해서 들어 있노라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벗어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몸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와 보고 듣고 들이는 거와 안에서 듣고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양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모든 게 작용이 되느냐?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중심에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대뇌, 누진이란 얘깁니다. 누진을 통해서, 이게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대뇌에서 척추를 통해서 모든 게 사대로 퍼지는데, 통신이 되는 건데, 이게, 본래.

그런데 이 누진이 바로 입력을 다 해 가지고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그 누진 자체의 선장을 쥐고 모든 걸 거기다 믿고 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 녹음이 되는 누진은 바로 이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난 누진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생사 건에도 그렇고, 이 모든 살아나가는 거, 수명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전체가 살아나가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녹음이 돼 있는 바로 개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아온 그 자체가 누적이 돼서 거기 전부 녹음이 돼서 있는 줄 모르고…. 그럼 거기서 차례차례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녹음을 해야 그놈의 게, 이 누진에서 녹음된 게, 즉 말하자면 입력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대충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멍멍하게 계십니까? 아, 지금 현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멍멍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말하는데 힘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도 말해 보고 저렇게도 말해 보고, 지금 난 요절이 났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전부 모습도 차원도 천차만별이고, 의식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에서 통신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움죽거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자라는 데를 채워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내 마음에서 모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급한 일을 해결하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입력을 했을 때, 통신을 했을 때 바로 직속으로 통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속, 화해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원자로 된단 말입니다, 그쪽 원자. 이렇게 왕래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찰나입니다.

이런데도 사람이라면 99%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살고 나가는지, 자기가 그렇게 구성된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 그것들을 통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떻게 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는 죽기 살기 그냥 매달리면서 육체로, 말로 그냥 한몫하죠. 그냥 '아이구, 불쌍한 너야, 왜 이러느냐. 아이고, 네가 잘돼야 될 텐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것을 잘 가르치는 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세세생생에 벗어나게 되면 모든 권리가 주어져서 자유의 권리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권을 가져서, 한마음 될 수 있는 권리권을 가져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한생각이 그렇게 보살로다 화할 수 있고, 법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보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문수가 되고 말입니다. 한생각을 했다 하면은 문수가 되고 움죽거렸다 하면은 보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림을 그리는 데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 모습을 놓고서 여럿이서 다 똑같이 그린다 합디다, 시험을 보느라고. 그렇듯이 우리도 다 제각기 똑같아요. 이 우주의 섭리가 다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크고 작을 뿐이지.

그래서 나 하나만 깨치면 모두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아주 그냥 딱 직결이 돼 있어요. 뭐, 그거는 이 우주의 근본이 이 행성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듯 이 행성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이게 보이지는 않죠,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허나 이 마음의 능력의 줄은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궤도를 그냥 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냥 수레바퀴에 얹혀서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안에 벌레로서 지구 바깥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을 좀 훌떡 벗어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 인간을 좀 훌떡 벗어나서
>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7545-4577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